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2022년 11월 19일 (토)

인도 : 백석준 목사

- 1 나의 생명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 2 괴론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 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 3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 후렴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써 나를 굳게 잡아주소서 아멘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 1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피 주시고
모든 일을 주안에서 행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힘받아 살았네
- 2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뵈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 3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벼를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기도담당

11/15(화)	11/16(수)	11/17(목)	11/18(금)	11/19(토)	11/21(월)
전 부 열	이 태 호	김 춘 식	박 동 희	박 승 필	김 민 수 1

이른아침예배

예배를 여는말	인도자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같이
찬송 380 장 다같이
기도	박승필 집사
성경봉독 욥기21:27-34 인도자
찬양 아 하나님의 은혜로 새벽찬양대
설교 『심판이 더디다고 여겨질 때』 백석준 목사
기도 준비된 기도문을 따라 다같이
찬송 301 장 다같이
축도	설교자

☞ 오늘의 말씀 <욥기21:27-34>

- 27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해하려는 속셈도 아노라
- 28 너희의 말이 귀인의 집이 어디 있으며 악인이 살던 장막이 어디 있느냐
하는구나
- 29 너희가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묻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의 증거를 알지 못하느냐
- 30 악인은 재난의 날을 위하여 남겨둔 바 되었고 진노의 날을 향하여 끌려가느니라
- 31 누가 능히 그의 면전에서 그의 길을 알려 주며 누가 그의 소행을 보응하랴
- 32 그를 무덤으로 메어 가고 사람이 그 무덤을 지키리라
- 33 그는 골짜기의 흙덩이를 달게 여기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보다 앞서 갔으며
모든 사람이 그의 뒤에 줄지었느니라
- 34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니라

새문안교회 이른아침예배 기도문

2022년 11월 19일(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토요일 이른 아침에 저희를 불러 주시어 기도의 자리에, 찬양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운데 감사함으로 살아내게 하시옵소서. 율법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늘 겸손한 마음으로 모든 이들을 대하게 하시고, 다른 이들을 쉽게 판단하고 평가하지 않고, 그들의 손을 잡아 주고, 함께 울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주인되신 하나님 예수그리스도의 몸 된 새문안교회가 우리시대의 희망이 되고 빛이 되게 하시옵소서. 여섯 번째 예배당에서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심으로 주님께 온전히 붙잡힌바 되어 주의 뜻대로 쓰임받는 교회 되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상학 담임목사님의 영육을 강건케 하시고, 능력에 능력을 더하심으로 모든 사역위에 성령님의 풍성한 역사가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또한, 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주일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의 임재와 일하심으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시간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 우주의 왕되신 하나님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분열과 분노로 온 나라가 뒤덮여 있는 이 혼란한 시기에 한국교회를 붙잡아 평화의 도구, 복음의 도구 삼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온나라와 열방에 복음전하는 교회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주실 것을 믿으며 생명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